

10개 선거구 44명 '출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 10개 선거구에 총 4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진행된 총선 후보 등록에서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4명, 민생당 6명, 정의당 4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기독교자유통일당 2명, 무소속 10명이 각각 입후보했다.

이에 본보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 44명과 함께, 진안군수 후보 2명도 함께 게재한다.

▶ 명부 게재 방식

선거구	**정당 표기 더불어민주당(민주) 미래통합당(통합) 민생당(민생) 정의당(정의) 민중당(민중)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 기독교자유통일당(기독) 무소속(무)
인물사진	**27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기준
이름(정당, 나이)	
직책 혹은 경력	

<p>전주갑</p> <p>김윤덕(민주, 53) 전 문재인 대선후보 전북상임선대위원장 염경석(정의, 59)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하태윤(배당, 73) 국가혁명배당금당 전북도당 대표 허성진(기독, 31) 자유통일청년정치 연합 공동대표 김광수(무, 61) 현 국회의원 이법석(무, 50) 킥기사</p>	<p>전주을</p> <p>이상직(민주, 57) 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이수진(통합, 51) 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조형철(민생, 55) 전 전북도의원 오형수(정의, 57)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김주원(배당, 40) 배당금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성치두(무, 44) 정치인</p>
<p>전주병</p> <p>최형재(무, 56) 전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김성주(민주, 56)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동영(민생, 66) 현 국회의원 최복기(배당, 69) 배당금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p>	<p>군산</p> <p>신영대(민주, 5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이근열(통합, 46) 국제사회미디어센터 협회 중앙 부회장 최순정(배당, 70) 약사 김관영(무, 50) 현 국회의원</p>
<p>익산</p> <p>김수홍(민주, 58) 전 국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인(통합, 63) 전 서남대학교 총장 고상진(민생, 46) 전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전권희(민중, 49) 민중당 전북도당 사무처장</p>	<p>익산을</p> <p>최영수(배당, 73) 전 삼성중공업 차장 한병도(민주, 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배숙(민생, 63) 현 국회의원 권태홍(정의, 55)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 최규석(배당, 57) 배당금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이은재(기독, 60)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배수연(무, 65) 사)에미셀 이사장</p>
<p>김제·부안</p> <p>방경채(무, 63) 흥조건설 대표이사 이원택(민주, 50)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김경민(민생, 65)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박정요(배당, 56) 요양보호사 김중희(무, 54) 현 국회의원 안호영(민주, 54) 현 국회의원</p>	<p>정읍·고창</p> <p>윤준병(민주, 59) 전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유성업(민생, 60) 현 국회의원 이강래(민주, 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상모(정의, 55) 화신사이버대 부교수 이용호(무, 60) 현 국회의원</p>
<p>완주·진안·무주·장수</p> <p>김창도(통합, 57)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임정엽(무, 60) 전 완주군수</p>	<p>진안군수 재선거</p> <p>전춘성(민주, 59)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이충국(무, 65) 전 전북도의원</p>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시스템 참조

도내 총선 후보 중 20억원 재산가 4명

무소속 방경채 후보가 109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아
2위는 40억2500만원 신고한 민주당 이상직 후보
민생당 조배숙 후보·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20억원 이상 재산가가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 등록을 받은 결

보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2등은 40억2500만원을 신고한 전주 시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이어 익산을 조배숙 민생당 후보가 20억6300만원, 군산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20억1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하태윤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자신의 재산을 마이너스 1484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최순정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도 재산이 마이너스 728만5000원이 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총선 후보, 토론회 관련 "유권자 알 권리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남, 임, 순)는 후보자 토론회 관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알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법정 토론회 한 차례만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작은변화포럼이 주최하는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4월 1일 전북CBS 등이 주최하는 '맞짱토론'에도 참석을 예고, 8일 열리는 전주MBC의 법정토론회까지 3차례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특별취재반

진안군수 재선, 전춘성 vs 이충국 '양자구도'

전주·군산시의원 재보궐도 진행 이 후보 역시 무소속 간의 단일화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무소속 예비후보인 김현철 전 도의원과 송상모 전 진안부군수와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진안군수 재선에는 경선을 통해 당선된 민주당 전 후보와 무소속 연대를 통해 탄생한 이 후보가 맞붙게 된 것이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진행된다. 전주시 마 선거구에는 민생당 채영병(47) 후보와 무소속 이수홍(38) 후보, 무소속 황영훈(31)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군산시 바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창호(47)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나종대(53) 후보, 무소속 이대우(30) 후보, 무소속 박이섭(64) 후보, 무소속 이백민(51) 후보가 등록했다. /뉴스스